



중소기업 CEO 경영정보  
CEO Management Information

- 최근 경기흐름과 전망
- 정책포커스
- 스페셜리포트
- CEO광장
- 중앙회 주요활동

## [최근 경기흐름과 전망]

### □ 2006년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 (06. 1. 11, 현대경제연구)

#### ▶ 가계 부채 해소 지연

- (전망) 실질소득정체, 고용부진지속, 금리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채의 존도와 부채 부담이 증가하여 가계 부채 해소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영향) 소비 양극화 심화, 민간 소비 회복 지연

#### ▶ 新3高 (高유가, 원高, 高금리) 고착화

- (전망) 시장불균형에 의한 고유가, 미경제 불확실성에 따르는 원화 강세, 세계적 금리 인상 추세 등에 의한 시중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新3고 현상 고착화
- (영향) 新3고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수출 부진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이경우에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침체가 예상

#### ▶ 1기업-多노조 시대 도래에 의한 勞-勞 갈등 심화

- (전망)
  - ① 노사 분규의 양극화→경기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의 노사분규 급증하여 노사 분규도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것
    - \*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사분규 비중 ('00) 28.8%→('04) 40.5%
    -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사분규 비중 ('00) 22.0%→('04) 12.1%
  - ② 노노 갈등 심화→기업-초기업 노조간, 복수 노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노 갈등' 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
  - ③ 노사정간 갈등 심화→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노사정간 이견으로 갈등 심화
- (영향)
  - 노사 협상의 창구 다원화, 잦은 노사 분규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기업 투자와 생산 차질에 따른 경기 회복 기조의 악화가 우려됨

#### ▶ 정치·사회·이념의 이분법적 갈등

- (전망) 지방선거, 대선, 총선 등 연이은 선거를 앞두고 배타적이고 소모적인 이념논쟁, 지역경제 이권 갈등 심화, 시장 개방에 의한 취약산업의 붕괴 등이 예상됨
- (영향) 정치·사회 불안이 확산될 경우, 정부 정책방향 표류, 민간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와 투자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존재

▶ **反 부자 정서 확산**

- (전망) 경기 양극화 진전, 기업 투명성 정책 등으로 반대기업, 反부자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 증대
- (영향) 기업들의 경제 심리 위축, 국내 투자 유인 감소 등으로 투자 부진과 같은 기업 활동 위축 현상을 초래할 경우, 경기 양극화 심화, 중산층 몰락, 성장잠재력 약화 등이 예상됨

□ **2006년 중국경제 전망 (05. 12. 20, 산업경제연구원)**

▶ **2006년에는 공급과잉 속에 8%대로 성장세 둔화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는 공급능력 과잉으로 2%대의 안정된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제조업 성장률은 15%대로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에너지, 소재산업의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 2005년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사상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중국 수출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의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대미 무역흑자는 위안화 환율 절상과 통상마찰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중국정부는 2006년도 경제정책 중점 추진 사항으로 8개항 선정**

- ① 안정적 재정, 금융정책 ② 소비는 장려하되 투자는 억제 ③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④ 산업구조고도화와 지역균형 발전 ⑤ 자원절약적, 친환경적 산업 장려 ⑥ 개혁정책의 심화와 개방정책의 확대 ⑦ 과학교육과 위생 강화 ⑧ 조화로운 사회 건설과 민생애로 해소

▶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지향**

- 투자와 수출감소에 대비하여 중소형 주택과 소형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비를 크게 늘려나갈 방침

▶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산학연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적극 유치
-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상해, 북경·천진 지역, 성도·중경 지역, 동북 3성 지역을 4대 핵심지역으로 설정  
- 서부지역에는 에너지, 광물산업, 식품산업을, 동북 3성 지역은 기계플랜트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설정, 중부지역에는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식량 생산거점 역할을 부여

- 동부 연안지역은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서부로 이전

#### ▶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국내외 기업간 차별화 축소

- 외자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전가격 조사, 인민폐 외채 관리 강화를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입 체제를 서비스, 에너지부문 산업으로 확대함

#### ■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중국의 내수시장에도 관심 : 중소형주력, 소형 승용차와 고급가전 등에 대한 판매 전략 개발필요
- 중국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차이나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중국경제모니터링시스템 활용([www.china.go.kr](http://www.china.go.kr))
-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인 중국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 강화 필요

### □ 최근 기업활동의 4대 리스크 (06. 2, 대한상공회의소)

#### ▶ 시장경쟁격화

-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 현황
  -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 중 매출액 상위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2%인 138개 사가 자사제품이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
-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 현황
  - 포춘 5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2005년에 11개 기업으로 매출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함
- 시장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이 크게 악화되어 적자기업의 비중이 17%('95)→20.6%('00)→23.3%('04)로 확대
  - '94년 56,472개의 중소기업체 중 10년 뒤인 '03년까지 생존한 기업은 14,315개(25.3%)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75개(0.13%)에 불과함

#### ▶ 환율불안과 고유가

- 원화까지 상승에 따른 채산성 관리 및 환율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이 크

계 위축

-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 올해에도 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
  - WTI에 대해 배럴당 52.40달러(석유산업연구소), 54.50달러(미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로 전망

▶ M&A위협

- 국내증시의 외국인 비중 증가
  - 국내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30.19%('00년)→40.5%('06. 2월)까지 상승, 외국인 1인이 5%이상 주식 소유한 상장사의 숫자가 450개까지 늘어남
  - 외국인 주주는 배당확대, 지배구조개선요구, 중장기투자대신 단기적 수익성 요구, 외국인주주측 이사선임 등 경영간섭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활용할 법적 수단이 다양하지 못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확대 등 현금투입형 방어대책에 의존

▶ 기업대상 소송리스크

- IMF사태 이후 기업 및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
  -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 도입
  -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이사의 충실의무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및 최고경영자의 인증의무화
  -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07년)
  -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예정('08년)
- 기업의 소송대비비용 및 기업대상 소송건수 증가추세
  - '00년 18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04년 362건으로 18배 증가

**[정책포커스]**

□ 산은, 중소기업 우대 확대 및 신용여신 활성화 (06. 1월 산업은행)

- ▶ 자금공급규모를 크게 늘리고 금리, 대출비용 우대
  - 혁신형기업 2.5조원 포함 총 6조원을 중소기업에 신규공급하고, 수요초과시 우선 증액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충족
  - 6조원 중 3.7조원은 금리, 대출비용을 우대하는 특별자금으로 지원하여 자금공급 촉진

- ▶ **국책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직접투자제도 신설**
  - 「초기 기술사업화 및 기업」투자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초기술의 상용화 및 창업 촉진
  - 협약체결 연구기관이 추천하는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연구개발·Testing·시제품 제작비용 등을 5억원까지 직접투자
-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여신 활성화**
  - 노후설비 개제용 특별시설자금 1,000억원을 신규로 설정하여 소요자금의 100%까지 무담보 지원
  - 중소기업 시설자금의 후취담보 인정비율 상향(50%→70%)
  - 기술력평가대출의 업체당 한도 증액 및 심사절차 간소화
  - 창업 5년 이내의 혁신형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가능성보다는 기업성장성 위주로 심사
- ▶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 지원**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펀드」1조원을 신규로 설정하여 운용
  - '06년에 신규로 승인되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금리율 0.4%p 인하하여 최고 1.5%p까지 우대
  - 금리스wap에 의한 저리의 CD금리연동 시설자금 5,000억원 운용
  -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펀드 5,000억원 운용
- ▶ **중소기업의 금융예로 해소 및 경영안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
  - 고객 희망 및 영업점 건의를 반영하여 '06년 기일도래 대출금 2.9조원 1년 연장
    - 영업점장 전결, 약식심사, 원금 일부내입면제로 신속 지원
  - 재무구조 개선 및 정상화지원을 위한 출자전환 활성화
  - 거래중소기업에 대한 무료·실비 컨설팅, 혁신형기업에 대한 「KDB 컨설팅 쿠폰 제도」도입 등

##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06. 1.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거시경제적 효과

-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로 총고용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체결 이후 대미 무역

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구분	단기(정태)효과	중장기(동태)효과
실질 GDP	0.42%(29억 달러 증가)	1.99%(135억 달러 증가)
실질 GDP	대미 수출	12.1%(54억 달러 증가)
	대미 수입	29.1%(96억 달러 증가)
	대미 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감소
생산	0.61%(8.5조원 증가)	1.94%(27.0조원 증가)
고용	-0.51%(85천명 감소)	0.63%(104천명 증가)

▶ 개별 산업에 미치는 효과

○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 미국의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진출에 따른 생산 확대, 국내 기업의 경쟁 및 대응에 따른 생산 확대 등 국내 서비스시장의 경쟁력 및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장기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구분	단기(정태)효과	중장기(동태)효과
실질 GDP	대미 수출	4.0%(27.9억 달러 증가)
	대미 수입	9.6%(45.8억 달러 증가)
	대미 무역수지	17.9억 달러 악화
생산	9.4조원 증가	15.9조원 증가
고용	171.2천명 증가	288.7천명 증가

○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체결 이후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대미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대세계 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개선될 것

구분	단기(정태)효과	중장기(동태)효과
생산	0.79%(3조 3천억원 증가)	4.53%(18조 7천억원)
고용	1.27%(40.4천명 증가)	6.52%(208.1천명 증가)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06. 1.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 ①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 소요비용의 80%,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 학습조직화 구축 실시 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기업체에게는 기업당 1,000만원 한도(건당 100만원 한도)에서 비용 지원

## ② 인력개발전담자 채용 장려 : 전담자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월 170만원까지 지원

## ③ 학습조 도입 · 운영

- 최소 5인 이상의 학습조를 구성하고 6월 이상 운영할 경우
- 기업당 3,000만원 한도 (학습조 수×100만원)

## ④ 학습조직 공간 구축

- 학습조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업장내 학습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내장재 및 학습조 활동에 필요한 PC, LCD 프로젝터 등 구입비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80% 범위 내)

## ⑤ OJT 프로그램 도입

- 외부전문가를 통해 현장훈련 형태로 이루어지는 OJT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컨설팅을 받아 기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OJT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지원

## ⑥ 후견인(멘토링)제도 도입

- 근속경력 12월 미만의 재직근로자와 업무 경력이 많은 근로자를 1:1로 편성하여 6월 이상 운영
- 기업당 1,000만원 한도 (후견인 수× 30만원)

## ⑦ 근로자 학습휴가제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7일 이상의 학습휴가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학습휴가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

## ⑧ 지식공유시스템 : 5,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80% 지원

## ⑨ 우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조직화 사업 수행기간 동안 경영성과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경우
- 기업당 우수학습활동 포상비 500만원 한도, 기업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

##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 비용부담 등으로 수감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CEO 포함)에게 무료로 제공
- 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인건비 전액을 지원

**[스페셜리스트]**

**□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책(안) (06. 1. 12, 중기청)**

- ▶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수출보험공사)
  -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수출 보험계약 체결한도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지원( '06~)
  -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요율 적용
    - 선물환 방식 6개월 거래시 0.02% 보험료 적용(기준보험료 0.05%)
    - \* 기준보험료율 0.05% × 특별할인율 50% × 중소기업할인율 15%
- ▶ 환리스크 관리 지원 사업 강화(중진공)
  - 최소거래금액의 하향조정
    - 현물환 및 선물환 최소 거래금액 : (현) 1만불 이상→ (대략) 5,000불 이상
  - 선물환 증거금 인하 및 거래한도의 상향조정
    - 증거금을 추가로 인하(△20%)하고, 거래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외환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거래한도 상향조정
- ▶ '05년말 종료된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연장 시행(신보)
  - 매출액 50%이상 수출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해 매출액 한도를 우대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06년까지 연장 시행
    - 구체적 시행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 수출금융자금 융자 지원 강화(중진공)
  - '05년 대비 예산규모 확대(700억→735억), 지원금리 인하(4.6%→4.4%)
  - 중소기업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자금 지원 확대 추진
- ▶ 수출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수출입 은행)
  - 환율급변시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통화전환옵션)을 한시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부여(약 1.3조원 대상)
  - 우대금리 적용(△1.8%p), 수수료 부담 경감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 시행
  - 신용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용대출 확대('05년 85%)

## ▶ 환위험 관리를 위한 지원제도의 교육·홍보 강화

- 환위험 관리에 대한 종합 상담전화 운영(중기청 콜센터(1357) 및 유관기관 상담전화 활용)
- 환위험관리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중기청, 중진공,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개최(1, 16~)

## □ 원화 강세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06. 1. 17, 산업연구원)

## ▶ 원화 강세의 일반적 영향

- 원/달러 환율 5% 하락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GDP(%)	소비자물가지수(%)	수출물량(%)	수입물량(%)	경상수지(억 달러)
-0.35	-0.5	-1.6	1.7	-29

## ▶ 원화 강세의 주요 업종별 영향

- 환율 5%하락 시 주력산업의 수출은 1.0% 감소 전망(금액 기준으로 약 22억 달러)

	수출물량(%)	수출물량(%)	수출물량(%)	수출물량(%)
자동차	▽▽(1.2)	▽▽▽	△	△
조선	▽(0.0)	▽▽	△	△
일반기계	▽▽(1.5)	▽▽▽	△	△
철강	▽▽(1.5)	▽△	△	△
석유화학	▽▽(1.3)	▽	△	△
섬유	▽▽(1.7)	▽▽▽	△△	△
가전	▽(0.5)	▽▽▽	△△	△
컴퓨터	▽▽(2.9)	▽▽▽	△	△
통신기기	▽(0.5)	▽▽	△	△
반도체	▽(0.0)	▽▽	△	△
주력제조업	▽▽(1.0)	-	-	-

-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섬유 및 컴퓨터 등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
  - 반면, 이미 상당 규모의 수출 물량이 확보된 조선과 업계 수급 상황이 가격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의 경우는 환율 하락의 영향이 극히 미미할 전망
- 자동차, 일반기계, 가전 및 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이 높기는 하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높고 환율 하락분의 수출가격 전가도가 낮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원자재나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철강 및 석유화학 등은 투입수입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환율 하락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

▶ 기업은 환위험 분산 경영을 통해 환율하락과 변동에 대응

- 수출기업들은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선 다변화, 결제통화로 달러화 외에 유로화나 엔화의 비중 확대
  -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업종은 내수시장 개척에 노력
- 성장형 주력산업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노력
  - 수출주도형 IT업종은 브랜드 인지도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해외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 활용
- 중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 취약 업종은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나 생산 거점의 해외이전 추진
  - 섬유 등 경공업은 개성공단 입주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가격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 제2의 중동 Boom 가능한가? (06. 2. 15, 삼성경제연구원)

▶ 사상 최대 규모의 오일머니 유입 지속

- 2005년 OPEC의 석유수출액은 4,73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 1980년 중동 붐 당시의 석유수출액 2,759억 달러의 1.7배 규모
  - 2006년 걸프연안 6개 산유국으로 유입되는 오일머니 총액은 연간 3,550억~3,88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 유가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급증이 중동 경제 호황을 견인

- 걸프연안 6개 산유국의 2004년 경상수지가 9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가 2,598억 달러에 이르는 등 대외부문도 양호
- 대중동 외국인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해외투자도 급증

▶ 중동시장에 대한 평가

- 한국기업의 신중한 사업전개가 필요
  - 중동 국가들은 오일머니를 물쓰듯 했던 70·80년대와는 달리 저축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에 투자
  - 한국기업은 원가 경쟁력에 의존하는 사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

- 중동의 건설시장은 과거 70~80년대의 기초인프라 건설 단계를 넘어 대형화-기술집약화되는 추세
- 단순 건설공사에서는 이미 중국, 인도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5년 내에 인도에 따라 잡힐 가능성

○ 중동시장은 한국기업에게 '제2의 중동 붐' 을 가져다주지 못하더라도 '기회의 땅' 이 될 수 있음

- 중동 산유국이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플랜트 ·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IT제품 등을 비롯한 내구소비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
- 한국기업은 IT 및 가전제품, 고급 철강, 정밀기계류 등에서 중국 등 후발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경쟁우위를 유지
-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에 주력, 대형프로젝트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틈새시장의 발굴 및 육성, 마케팅활동 강화

#### ▶ 중동시장 접근전략

- 시장규모와 경제자유도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한 진출전략이 필요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규모가 큰 반면 경제자유도가 낮아 내구소비재 위주의 수출전략이 필요
  - 바레인과 UAE(두바이)는 시장규모가 작은 반면 경제자유도가 비교적 높으며 중동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물류 및 유통부문의 현지투자가 필요
  -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은 시장규모가 작고 경제자유도도 낮은 시장이나 에너지 자원 개발관련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을 강화

**[CEO광장]**

□ 기업 경영 포인트 7 (06. 01. 04, LG주간경제연구)

<p>기업을 살리는 킬러 디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킬러 디자인이란? : 특정 제품군에서 제품 트렌드를 창조하고 동시에 한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li> <li>○ 성공사례 : '애플, 아이팟, LG전자, 초콜릿폰'</li> <li>★ 성공포인트⇒제품의 감성품질이 중요! 디자인 역량의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에 일관된 통합 디자인 전략 마련</li> </ul> </li> </ul>
<p>중국 비즈니스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리스크 덩어리?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li> <li>★ 성공포인트⇒'고품격 서비스' 시장의 기회에 집중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프랜차이즈 사업 (KFC)</li> <li>- 유통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소매 유통 비즈니스 (까르푸, 이마트)</li> </ul> </li> </ul>
<p>저가시장의 재발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경기 침체 및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로 인해 저가시장 급부상</li> <li>○ 성공사례 : 초저가 화장품(미샤, 더페이스샵) 휴대폰(노키아, 모토로라)</li> <li>★ 성공포인트⇒장기적 관점으로 적극적 시장선점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크므로 전략적 가격 설정이 필요, 혁신적인 비용절감체계를 통해 저비용 실현, 가격 이외의 차별적 효용을 제공</li> </ul> </li> </ul>
<p>뉴미디어 시대 신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성과 양방향성으로 인한 연결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뉴미디어 (블로그, DMB, 팟캐스팅) 부상</li> <li>★ 성공포인트⇒니치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품,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li> </ul>
<p>디지털 성장동 (成長痛)이겨내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제품의 전반적인 판매가 하락으로 인해 IT 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당분간 힘들 전망</li> <li>★ 성공포인트⇒빠른 신제품 대응력과 저가 시장 대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여 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li> <li>- 원가 절감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 구축</li> </ul> </li> </ul>
<p>복수노조 환경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li> <li>★ 성공포인트⇒노사가 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상생의 노사관계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 창출을 위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 구성원에 대한 감성 리더십 발휘, 진정한 성과주의 HR 정착,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위기 대응 능력 강화</li> </ul> </li> </ul>
<p>컨틴전시 (Contingency) 경영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 위험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컨틴전시 경영 체제 확립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류 인플루엔자, 태풍, 테러 등 각종 재난들이 급격히 증가</li> </ul> </li> <li>★ 성공포인트⇒재난위험을 정확히 예측하여 대응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적 재난예방체제 수립, 재난의 포트폴리오 관리</li> </ul> </li> </ul>

□ 2006년 글로벌 기업 동향 (06. 1. 18, 삼성경제연구)

▶ 2006년 글로벌 기업 동향

- CEO : 공격적 성장전략 추구

- CEO가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
- “소니는 IT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영역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워드 스트링거 회장)
- 실적이 양호하더라도 조직원의 결속력 및 위기의식 고취에 주력
- “마쓰시타가 비록 궁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위기상황임을 유념”(나카무라 쿠니오 사장)
- 경쟁전략 : 글로벌 과점과 추구
  - 연합전선 구축 및 경쟁시간 전략적 제휴 등 ‘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IT업계의 경우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통신업체, 검색업체 등이 상호제휴와 견제를 통해 입지를 강화
- 글로벌 전략 : Emerging Market 기회 선점
  - 중국 서부내륙지방 뿐만 아니라 BRICs 등의 신흥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
  - HSBC의 경우 주요 임원 이사회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여 임원들에게 신흥시장에 대한 중요성 각인
  -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현지화 지향
  - 모토로라는 랩스폴라 인도 마케팅 책임자를 영입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
- 사업구조 : 기존 핵심사업을 정비하여 미래 성장사업의 도약대로 활용
  - 본업의 경쟁력이 일부 손상된 기업들은 사업을 재편하고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 애플은 휴대용 디지털 단말기와 콘텐츠가 결합된 ‘디지털허브’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추진
  - 소니는 비핵심사업에서 철수하고 강점을 가진 AV분야인 고화질 영상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
- 조직 · 인력 : 스피드와 창의성 추구
  - CEO와 현장이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스피드 지향형 조직구조 지향
  - 우수 인재 유치 및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새로운 경영 아젠다로 설정
  - GE는 이멜트 회장 취임 이후 ‘imagination at work’을 경영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즐거움 토론 문화’ 정착을 시도, 우수인력 수혈 및 유지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업무의 자율권 등을 대폭 확대
- 사회와의 관계 : 先制的 CR(Corporate Responsibility)추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고객친화 등 기업경영 전반의 CR화
  -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회공헌활동을 주요 경영전략으로 책정하고 임원 평가에도 20% 이상 반영

- 액손모빌은 그린피스, 세계야생동식물기금 등 환경보호 단체들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운영

□ 엔터테인먼트에서 엿보는 소비 심리 (06. 2. 22, LG주간경제)

▶ 이종격투기와 복합적 자극

- 자극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더욱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있음
- 마케팅 전략
  - 독특하면서 즉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품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 단, 차별화에 좀 더 과격적일 필요가 있음

▶ 워터파크와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 몇 년전까지만 해도 워터파크라면 캐리비안베이나 워터피아 정도였으나 많은 콘도리조트들이 워터파크를 설치하고 있으며 도심에도 대규모 워터파크가 들어서고 있음
  - 편안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찜질방과 다르지 않으나 찜질방보다 다양한 자극을 즐길 수 있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형 엔터테인먼트라는 점에서 차별화됨
- 마케팅 전략
  - 제품의 가치를 고객이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험마케팅 장치가 필요
  - 단,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적극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적으므로 몸의 편안함이나 심리적인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체험 마케팅 전략이 필요

▶ 단순한 게임과 귀차니즘

- 몇 년전 PC게임의 대명사는 스타크래프트였으나 지금은 카트라이더가 대세
  - 복잡한 게임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므로 단순한 게임이 부각
- 마케팅 전략
  -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체크하고 편안함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

▶ 디지털카메라와 자기에

- 허찮은 일상을 기록하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
-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 자기에의 강화
  - 딱딱한 현실일지라도 인터넷 세상속의 자신은 멋진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함
- 마케팅 전략
  - 기업은 자사의 상품구매가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함

**[중앙회 주요활동]****▶ 지방간담회 개최**

- 일 자 : 2006. 1. 23(광주시장, 전북도지사), 1. 24(충북도지사), 1. 26(제주도지사)  
2. 10(인천시장, 경기도지사), 2. 13(경남도지사), 2. 14(충남도지사), 2.  
15(부산시장, 대구시장), 2. 17(강원도지사), 2. 20(서울시장)

- 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 02) 2124-3175

**▶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 일자(장소) : 2006. 2. 28(화) 10:00, 2층 국제회의장

- 담당부서 : 총무회계팀 ☎ 02) 2124-3051

**▶ 중소기업 고용·산재보험 실무강좌 개최**

- 일자(장소) : 2006. 3. 3(금) 13:30~ 17:30, 본회 2층 국제회의장

- 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종합상담실 ☎ 02) 2124-3301

##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태림포장공업(주)

대표이사 정동섭

4월 12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주)동진판지

대표이사 김귀진

4월 15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주)산성피앤씨

대표이사 김진구

4월 30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